

# 노인문제 해결 키워드는 '일자리'

광주시 광산구 흑석동에 거주하는 김 모(67세) 어르신은 '6070아파트택배'를 위해 매일 아침 출근길을 서두른다. 어르신의 하루 일과는 오전 9시 출근, 10시 택배영업소로부터 당일 배송 물량 접수, 11시부터는 배송물량을 아파트 단지별로 구분하고 배송을 시작한다.



초고령화 사회, 노인의 지식과 경력이 생산적 기여와 활동적 은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노인 취업 박람회에서 구인활동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점심 식사 후에는 나머지 물량을 배송하고,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택배 물량을 정리한 뒤 마지막으로 전산입력을 완료하면 오후 4시가 된다. 때론 물량이 많거나 집에 사람이 없어 배송이 안 되는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일을 하셔야 할 때도 있다.

1년 전 일을 막 시작할 때는 참으로 힘들었다고 한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것은 날씨 때문에 고생도 많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이 일을 시작하기를 참 잘한 것 같아. 퇴직해서 그냥 편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고. 퇴직하고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힘들거니와 좀 참피하더라고. 근데 인제는 전문가 다 되었다는 소리도 들어.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네들은 많지만 일자리가 부족하지. 그리고 말이야 노인들이 일한다고 할 때 능력이 있을까 하는 의심들이 많아. 노인들도 할 수 있거든."

김 모 어르신의 이야기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이 때 고령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법 중 하나를 제시하고 있다.

2008년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취업노인의 약 32.2% (114만 명)가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114만 명 중 일부 노인은 일자리

## "노인도 할 수 있다" 사회 인식 전환 시급

### 일자리 늘리면 의료비 절감·빈곤율 감소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또는 자원봉사 활동 등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유지, 시간활용, 사회적 관계개선 등 다양하다.

2004년부터 본격 시작된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원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충, 사회참여기회제공, 건강증진, 사회적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 어르신들의 생활패턴을 변화시켰다.

유급노동시간의 증가로 신문, TV 시청 등 소극적 여가활동이 축소되고

생산적활동이 증가되었다. 또한 다양한 사회활동 증가로 사회관계 개선, 의료비 절감, 빈곤율 6.1% 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노인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다. 많이 완화되어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노인이 일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의심스런 눈초리를 보내거나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데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자식을 닮았거나 능력이 없거나 하는 등이 그것이다. 다음은 베이비 붐 세대 은퇴에 대

한 사회적 준비이다. 전체 인구의 14.6%(712만 명)을 차지하는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인 노년기를 맞이하는 시점부터는 이전의 고령화속도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세대는 산업사회를 경험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양질의 인적자원으로, 숙련된 노동능력의 대거이탈은 국가경쟁력 기반의 급속한 약화 초래와 내수 위축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제정의 지속가능성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학력, 전문직 은퇴 후 현 노년층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예비노인에게 노인의 지식과 경력이 생산적 기여와 활동적 은퇴로 이어질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정운·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호남지역본부 팀장

##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

### 북구 두암 2동 '주영 헤어아트' 송명미 원장

### 매주 수요일 '행복 가위손' 봉사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동생이나 주변 사람들 머리 만져 주는 게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미용일을 하면서 한번도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북구 두암2동에서 주영헤어아트를 운영하고 있는 송명미(55 사진) 원장. 지난 1975년에 미용일을 시작했으니 올해로 35년째다. 오랜 세월 미용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 '남들도 아름답게 꾸며줘야 한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미용봉사활동이란다.

송 원장은 매주 수요일이면 미용실 문을 닫고 6명의 직원과 같이 광주·전남에 있는 요양병원을 직접 방문해서 미용 봉사활동을 4년째 실시하고 있다.

또 광주지역장애인협회 회원들이 결혼을 하는 날이면 바쁜 일 뒤로하고 달려가 신부 머리 단장 봉사를 10년



째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주위에 알려지면서 지난해에는 협회에서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송 원장은 "머리 깎는 날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볼 때면 2년 전에 돌아간 어머니 생각이 나고, 깔끔해진 모습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송 원장은 또 "어르신들을 부모처

럼 생각하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열심히 할 뿐인데 알려진다는 게 부끄럽다"면서 "매주 수요일만 되면 직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서 다들 천사 같고 사랑스럽다"고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 시설 뿐 아니라 재가 장애인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머리 손질을 못하는 개인들의 요청에도 가까이 봉사를 하겠다는 송 원장 "직원들과 더불어 하루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봉사 활동에 나서면서도 가지고 있는 기술로 나눌 수 있다는 데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몸이 건강하는 한 일도 봉사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승준·광주시 서구 금호동

## 클릭! 맛집



## "요리달인이 만든 국밥 드세요"

### 오리 폭 고아 만든 국물 맛 깔끔...여성·어린이 '밥 한그릇 딱딱'

#### ■광주시 화정동 '천석국밥'

국밥집에 가면, '밥심'으로 산다는 의미를 알게 된다. 소나 돼지의 뼈를 고아서 만든 육수에 '고봉 밥'을 말아 먹다 보면, 무언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 그곳이 하북한 장터의 가마솥 앞이거나, 후미진 골목 어귀라 하더라도 국밥 한 그릇이면

광주시 서구 화정4동 모아타워 아파트 옛날주막국밥 천석국(업주 고득용)은 폭 고아 만든 국물에 밥 한 그릇 딱딱 비울 수 있는 곳이다.

업주 경력부터 참 특이하다. 광주지역 유명 호텔에서 총주방장을 지내면서 고 김대중·노무현 전대통령의 지역 만찬을 도맡아 하던 이다. 요리 달인답게 오리로 국물을 내고, 오리 고기를 곁들여 먹어 먹는 유향 오리국밥을 만들어냈다.



〈임병순대〉

오리뼈를 넣고 하루 종일 푹 고은 뒤 탕글탱글한 오리 살을 얹어 손님상에 낸다. 국물은 오리 특유의 냄새도 없고, 개운하다. 오리와 잘 어울리는 미나리를 넉넉하게 넣고, 부추로 맛을 내 여성과 아이들에게도 권할 만하다. 들깨가루를 풀어 걸쭉하게 내는 오리탕과는 달리, 국물 맛이 깔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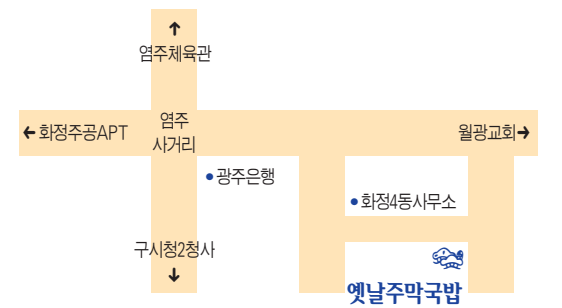
오리고기는 따로 간져 초장과 새우젓에 살짝 찍어 먹으면 더욱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적당히 삶아져 고기가 부드럽고, 쫄깃쫄깃 씹는 맛도 좋다.

이름난 요리사답게 밑반찬도 정갈하다. 톳고추를 갈아 담근 고흥물김치는 오리 고기의 느끼한 맛을 없애주고, 기름과 깨를 듬뿍 넣어 무친 부추는 입맛을 돋게 한다. 야채를 듬뿍 넣은 양봉 순대는 술 안주로 그만이다.

유향오리국밥 6000원, 양봉순대 1만원, 내장·머리·순대국밥 각 5000원. 문의 062-373-8292.

/오광특기자 kroh@kwangju.co.kr

#### ■찾아가는 길



### 인생열쇠

☎ 062-383-8982

■큰 꿈을 가지고 많은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도 원하는 바를 성취 못하고 갈 수 없는 장애가 생기는 분

■현실의 장애를 이겨내고 이루고자 하는 꿈을 실현하고 싶은 분

소원성취의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점술원, 역술원 아님, 상담료 없음)

부담없이 차한 잔 하시면서 삶의 지혜를 얻어 가세요

### 대인동상실부동산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담공인중개사

010-3616-8698  
062-233-2222

●태양광부지 구함●

식당, 전원주택.

- 광산구 신암동 호남대역 3,458㎡ 3.3㎡당 100만원,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용, 조판양호
- 전원주택, 종교시설용지
- 광산구 신월동 보현영원역 9,722㎡ 3.3㎡당 60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 농장, 주말주택.
- 나주 세지면 송제리 7,385㎡ 3.3㎡당 48,000원, 보전관리지역.
- 나주 왕곡면 소재지 부근 7,410㎡ 3.3㎡당 35,000원, 계획관리지역.
- 나주 불광면 각동리14,093㎡ 3.3㎡당 48,000원, 계획,생산관리지역.
- 영암 군서 양장리 19,098㎡ 3.3㎡당 35,000원, 생산관리지역.
- 영암 덕진 영보리 14,414㎡ 3.3㎡당 35,000원, 생산관리지역.

식당, 사무.

- 서구 마북동 서남대병원 앞 대지 1,337㎡, 연면적(2층)400.2㎡, 매매가 11억.
- 서구 능성동 구 한전앞 대지 719.7㎡, 연면적(3층) 328.9㎡, 매매가 11억.

생산녹지

- 서구 마북동 광송간 도로변(군사보호지역)5,243㎡, 2차선 도로 진입가능, 매매가 3.3㎡당 116만원.

### GG경매컨설팅(주)

공인중개사 : 김영희  
☎062)364-8700  
H.P.010-4608-3700

지역	소재지	면적/평	감평가	최저가
광산구 남구	아파트빌	모아	118/36	192천
	주상주택	영지	158/48	192천
	건물	삼리	109/33	191천
	부동산	무등리	172/52	291천
북구	주상주택	한곡리	175/58	192천
	주상주택	한곡리	224/68	192천
	주상주택	한곡리	190/60	192천
	주상주택	한곡리	205/62	192천
서구	주상주택	대우리	190/60	292천
	주상주택	대우리	109/33	192천
	주상주택	대우리	154/56	392천
	주상주택	대우리	145/44	392천